



#호주 #국보

‘호주의 국가문화재’

펜폴즈 그랜지

Penfolds Grange

지역	호주 > 바로사밸리		
포도품종	쉬라즈 98% 까베르네 소비뇽 2%		
알코올	1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오크 숙성으로 발현된 복합적인 부케와 겹겹게 잘익은 베리류의 과일향을 느낄 수 있으며 이후에 허니, 그레이프 프루츠의 아로마가 은은하게 풍기고 버터를 발라 그릴링한 듯한 육류의 풍미와 감칠맛, 견과류의 뉘앙스 등이 복합적으로 느껴진다.		
페어링 TIP	소고기/양고기/치즈		



제품설명



그랜지는 전세계 와인 애호가 손꼽는 최고의 호주 부띠끄 와인으로서 2001년 호주 국가문화재로 등재된 와인이다. 그랜지는 1951년부터 매 출시 빈티지마다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쉬라즈 품종과 호주 남부의 기후, 토질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한 명작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수상내역



2021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8점
2019빈티지詹시스 로빈슨 Jancis Robinson 98점
2018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100점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았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